

# 지상진료실

## HERPES ZOSTER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 승 우 교수

본 증례는 70세 남자의 삼차 신경(trigeminal nerve)에 이환된 herpes zoster (대상포진)의 소견으로, 편측성 병소를 보여주고 있다. 혀의 좌측에 국한되어 현재 치유과정 중인 fibrin으로 덮힌 궤양이 있으며, 좌측 협점막과 구개부에도 병소를 가지고 있다. 구강점막 중 가장 흔하게 이환되는 부위는 구순, 혀, 구개부, 협점막 등이다. 이러한 구강병소로 인한 동통은 매우 심한데, 종종 치수염으로 오인 되기도 한다. Herpes zoster는 전신적

인 저항력이 낮은 환자나 corticosteroid와 같은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흔하다. 흔하지는 않으나, 치아상실, 골수염, 부골형성을 동반한 골괴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골괴사를 일으키는 기전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다. 한편, Hodgkin's disease가 herpes zoster를 일으키는 주요한 소인으로 작용한다. 피부의 병소를 동반하지 않는 구강내 herpes zoster에 관한 보고는 거의 없다.

